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5호 [투게제2671호]

주체 110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음력 10월 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전변의 새 역사창조를 힘있게 추동하는 음악정치

지난 10년은 노래로 력동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뜻과 의지를 담아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세차게 울리고 그속에서 창조와 전변의 가슴벅찬 력사가 수놓아져온 감동깊은 날이었다.



시대의 명곡들로 인민을 기적과 위훈창조로

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정기 뿌리며 앞으로
척척척
...
평범하게 흘러온 10년이
나였다.
노래 《발걸음》과 함께 인
민들에 더 친근하게 다가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은 나라에 2월의 정기를
뿌려주시며 전변의 첫해를
음악의 장중한 포성으로
여시였다.
주체101(2012)년 1월 신년
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
하리》가 진행되고 음악무용
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에 이어
광명성절에는 대공연 《대
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의 무대가 펼쳐져 온 나라를
격정의 도가니로 뒤흔어놓았
다.
은 나라를 산악같이 일
떠세우며 펼쳐지는 공연무
대들을 보면서 누구나 또
한분의 절세위인께서 펼치
시는 음악정치로 더욱 통
성할 조국의 앞날을 확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
하시며 즐겨 부르시는 노래
들이 인민모두의 심장을 울
어잡는 것은 바로 그 한편
편이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민중의 음악적분출이
기때문이다.
제2의 예곡가로 사람들속
에 널리 불리우고있는 노래
《조국찬가》도 그렇게 태어
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노래
《인민화국찬가》를 놓고
가사의 구절구절, 표현 하
나하나를 인민의 생활, 인민
들과 친숙한 어휘를 그대로
담아 새롭게 고쳐 완성시켜
주신 노래가 바로 《조국찬
가》이다.

이 노래가 사람들의 가슴
을 울려주는 것은 그 주옥같
은 표현들에 인민의 꿈과 리
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향과
열정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
이다.
새로운 승마바람을 일으키
며, 마식령스키장에서 문명
의 눈발기를 날리며, 이를
조차 처음 들어보는 수습계
의 수조들이 야외와 실내에
확 들어차있는 문수물놀이장
에서 모든것이 활황하고 눈
이 부시어 사람들이 터친
노래는 《이 땅에서 모든 꿈
이 이루어지리》, 바로 《조국찬
가》 이 노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는 하지만 이 노래속에 이
나라 강산은 10년세월 10년
도 넘게 변하였다.
노래와 더불어 시대앞에 지
닌 사명감으로 심장을 끓이
시고 노래로 인민에 대한 전
실같은 사랑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해 새해에는 위대한 수령님
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
체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
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
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
여 헌신분투할것이라는 맹세
로 다시금 세상을 격동시키
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해빛밖
은 집,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행복부친 집인 사
회주의 내 조국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삶을 누
리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산인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
내어나갈 의지를 더 굳게 다
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청
춘관원을 바라보시며 정말

있어본적이 없는 가슴뜨거
운 정의로 세계를 무한히 격
동시키시였다.
바로 이런 위인을 어버이로
모시였기에 인민은 《우리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게시기에, 우리 누구도 두렵
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라
고 환희의 노래를 터치며
그이의 령도만을 총정도로
받들어 위대한 전변의 력사
를 펼쳐가고있는 것이다.

위민헌신의 령정 노래와 더불어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근심 많은 어머니 어데 있
던가
동리는 이 나라 새벽길을
먼저 걸고
숫눈길도 앞서 걷는 우리
어머니
...
첫걸음부터 어버이의 길이
였다.
헌신과 고생을 락으로 여기
며 가시는 길이였고 인민을
지켜 자위의 군력을 강화하
기 위한 숫눈길도 앞장서
헤쳐가신 고행의 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27hp의 목선에 대한 이야
기도 그때에 생겨났고 최우
선, 절제사라는 원칙과 열
사복무의 정신이 타올라 인
민들의 심금을 쿵쿵 울려주
었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
가 전하는 사연은 더 뜨거
운 것이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로비
서대회에서 원수님께서 이
노래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
소리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

리 한길을 가리라》를 들으
며 당 제7차대회를 활개를
걸십하고 력사적인 당대
회장에서는 백두에서 개척
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
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함몰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실사 몸
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
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나
변함없이, 사십없이 우리 인
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총싹할것이라고 굳은 맹약을
다지시였다.
그이의 그 절절한 음성을
들으며 인민들은 누구나
그이를 우러러 영원히 한길
을 함께 갈 불타는 일념을
다지였다.
이뿐이 아니었다.
노래 《당여 그대 있거
에》가 나왔을 때에는 정말
좋은 노래라고, 이 노래에는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
살려주는 조선로동당이 있거
에 더 좋은 래일, 잘살 날이
반드시 올것이라는 우리 인
민들의 굳은 신념이 반영되
여있다고 말씀하시며 인민을
위한 고생을 더 큰 영광으로
떠안으시였다.
비바람과 찬바람속에서 자
식들을 더 품에 껴안은 어
머니의 심정으로 그이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을 찾아 큰
물이 제지도 않은 대청리의 감
탕길을 제일먼저 헤쳐주시고
림시방들로 세운 위험천만한
협곡철길로도 주저없이 려차
를 달리시였다.
그 하늘같은 사랑속에 수
재민들은 군당위원회창사에
서 살고 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하는 김정은시대의 새
전설이 펼쳐났고 전지와 같
이 수도당원사단이 조직되어
피해지역들로 급파되는 격동
적인 화폭들이 펼쳐졌으며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말이
생겨나 세상을 감복시키
고있다.

히 한길을 가리라》를 들으
며 당 제7차대회를 활개를
걸십하고 력사적인 당대
회장에서는 백두에서 개척
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
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함몰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실사 몸
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
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나
변함없이, 사십없이 우리 인
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총싹할것이라고 굳은 맹약을
다지시였다.
그이의 그 절절한 음성을
들으며 인민들은 누구나
그이를 우러러 영원히 한길
을 함께 갈 불타는 일념을
다지였다.
이뿐이 아니었다.
노래 《당여 그대 있거
에》가 나왔을 때에는 정말
좋은 노래라고, 이 노래에는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
살려주는 조선로동당이 있거
에 더 좋은 래일, 잘살 날이
반드시 올것이라는 우리 인
민들의 굳은 신념이 반영되
여있다고 말씀하시며 인민을
위한 고생을 더 큰 영광으로
떠안으시였다.
비바람과 찬바람속에서 자
식들을 더 품에 껴안은 어
머니의 심정으로 그이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을 찾아 큰
물이 제지도 않은 대청리의 감
탕길을 제일먼저 헤쳐주시고
림시방들로 세운 위험천만한
협곡철길로도 주저없이 려차
를 달리시였다.
그 하늘같은 사랑속에 수
재민들은 군당위원회창사에
서 살고 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하는 김정은시대의 새
전설이 펼쳐났고 전지와 같
이 수도당원사단이 조직되어
피해지역들로 급파되는 격동
적인 화폭들이 펼쳐졌으며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말이
생겨나 세상을 감복시키
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
하시며 즐겨 부르시는 노래,
그것은 단순히 오선지위의
선율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 조국에 대한
뜨거운 헌신의 울림인 것이다.
강국은 결코 령로나 인구
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어머니를 모시어 공
화국은 강국이고 공화국의
인민은 존엄높은 강국의 인
민인 것이다.
《그 정을 따르네》, 《어
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와
같은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송가가 련이어 창작되고 사
랑과 정의 힘으로 불멸한
국기, 그 국기에 찬란히 새
겨진 별을 승리로 빛받치게
하겠다는 《우리의 국기》와
같은 명곡이 태어나는 것은
위대한 령도자, 인민의
참다운 령수를 모신 인민만
이 웨칠수 있는 긍지이고 소
리높이 구가할수 있는 자부
심인 것이다.
* * *
지금 세계는 노래로 전변
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악정치
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들을
높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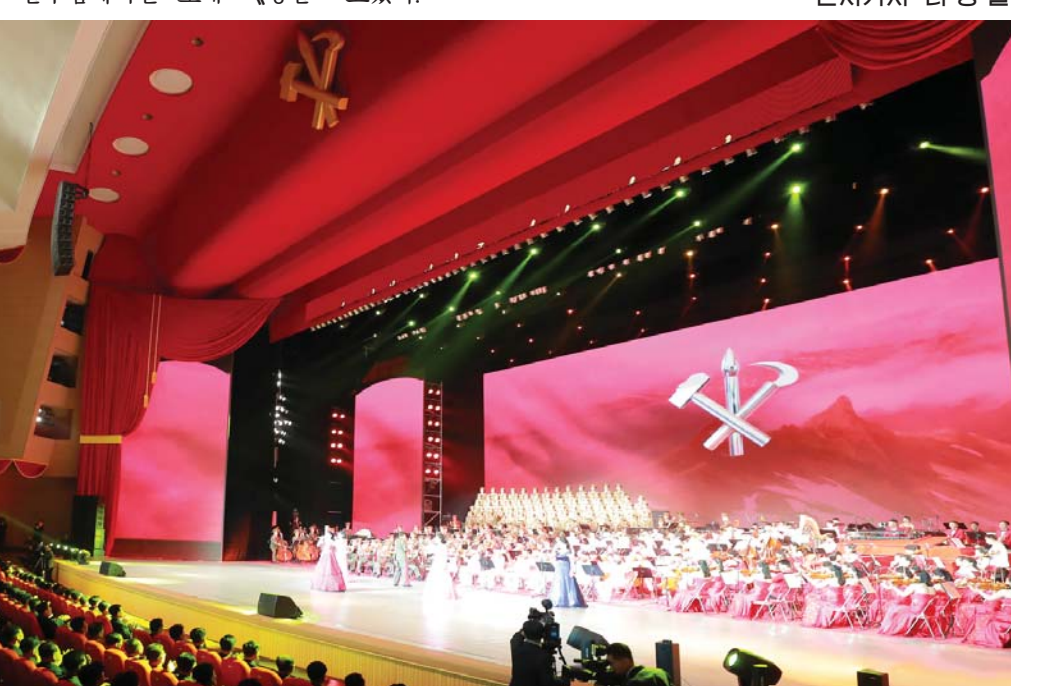


꿈이꿈이 위민헌신의 그
자욱을 더듬어보노라면 귀
전에 울려오는 한편의 노래
가 있다.
《당을 노래하노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일
군들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
인하고 보살펴주어 인민들속
에서 《당을 노래하노라》
이 노래가 언제나 울려나오
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
였다.
당을 자기들의 삶을 빛내
주는 세상에 돌도 없는 품이
라고 절절히 노래하는 인민,
당의 붉은 기폭을 어머니의
웃자락처럼 부둥켜안고 목메
여 노래하는 그 인민들 품
에 꼭 안으시고 《당을 노래
하노라》 이 노래와 더불어
력사의 생년길을 헤쳐오신

원수님께서 이 노래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
위력한 자위의 군력우에 인
민들의 행복한 삶이 있다는
억척불변의 진리를 안으시고
위험천만한 시험밭장들에
도 서슴없이 나가시였다.
그 날에 원수님께서 좋은
노래라고 거듭 만족해하
신 《근위부대자랑가》와 같
은 멋쟁이군가, 《승리는 대
를 이어》와 같은 승리의
쾌감을 한껏 맛보게 하는 명
곡들이 태어났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주
체식 절대병기들이 연료를
달라며 날아오른것이 아니
라 노래로 혁명신념을 백
배하시는 원수님의 불굴의
정신력, 위대한 헌신에 받들
려 솟구쳐올랐고 국가행무력
향성의 력사적대업은 성취되
었다고 격정의 마음들을 터
치였다.
노래와 더불어 새겨진
위민헌신의 령정을 돌이켜볼
수록 감격없는 들을수 없
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떠오
른다.
원수님께서 노래 《영원

리 한길을 가리라》를 들으
며 당 제7차대회를 활개를
걸십하고 력사적인 당대
회장에서는 백두에서 개척
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
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함몰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실사 몸
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
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나
변함없이, 사십없이 우리 인
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총싹할것이라고 굳은 맹약을
다지시였다.
그이의 그 절절한 음성을
들으며 인민들은 누구나
그이를 우러러 영원히 한길
을 함께 갈 불타는 일념을
다지였다.
이뿐이 아니었다.
노래 《당여 그대 있거
에》가 나왔을 때에는 정말
좋은 노래라고, 이 노래에는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
살려주는 조선로동당이 있거
에 더 좋은 래일, 잘살 날이
반드시 올것이라는 우리 인
민들의 굳은 신념이 반영되
여있다고 말씀하시며 인민을
위한 고생을 더 큰 영광으로
떠안으시였다.
비바람과 찬바람속에서 자
식들을 더 품에 껴안은 어
머니의 심정으로 그이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을 찾아 큰
물이 제지도 않은 대청리의 감
탕길을 제일먼저 헤쳐주시고
림시방들로 세운 위험천만한
협곡철길로도 주저없이 려차
를 달리시였다.
그 하늘같은 사랑속에 수
재민들은 군당위원회창사에
서 살고 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하는 김정은시대의 새
전설이 펼쳐났고 전지와 같
이 수도당원사단이 조직되어
피해지역들로 급파되는 격동
적인 화폭들이 펼쳐졌으며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말이
생겨나 세상을 감복시키
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
하시며 즐겨 부르시는 노래,
그것은 단순히 오선지위의
선율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 조국에 대한
뜨거운 헌신의 울림인 것이다.
강국은 결코 령로나 인구
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어머니를 모시어 공
화국은 강국이고 공화국의
인민은 존엄높은 강국의 인
민인 것이다.
《그 정을 따르네》, 《어
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와
같은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송가가 련이어 창작되고 사
랑과 정의 힘으로 불멸한
국기, 그 국기에 찬란히 새
겨진 별을 승리로 빛받치게
하겠다는 《우리의 국기》와
같은 명곡이 태어나는 것은
위대한 령도자, 인민의
참다운 령수를 모신 인민만
이 웨칠수 있는 긍지이고 소
리높이 구가할수 있는 자부
심인 것이다.
* * *
지금 세계는 노래로 전변
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악정치
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들을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접하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진행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0월 28일 평양
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회의에는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
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

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
히 관철하여 우리 국가제일
주의시대, 부흥강국의 새시
대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노력
하기 위한 실천적과업들을
토의하였다.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
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은 중
첩되는 도전과 난관을 물리
치며 우리 국가를 부흥발전
시키고 전제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
이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지
지찬동을 표시하였으며 공화
국의 모든 공민들과 함께
시정연설과업관철에 힘있게

펼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
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
하신 강령적인 과업들을 철저
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주
요과업들과 실천방도들을 구
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
정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
었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진행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0월 29일 화상
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는 천도교청우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
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
에 대하여》에 제시된 강령
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
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를 빛내는데 적극 이바지
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
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리명철 천
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
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중
첩되는 도전과 난관을 물
리치며 우리 국가를 부흥
발전시키고 전제 인민을 부
럼없는 행복으로 하루빨리
인도하는 지름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인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철
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사
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시정방침관철을 위한 전인
민적총진군을 다그치는데서
공민적의무를 다할 결
의들을 펴려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
하신 강령적인 과업들을 철
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사
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리명철